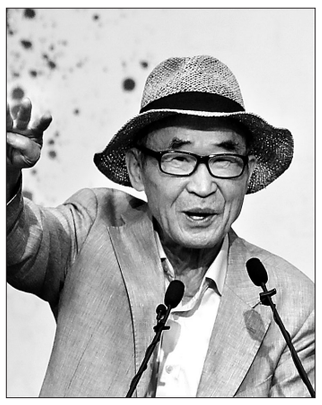
“한국인, 말 의한 · 떠난 진리 지녀야”

고은 시인, 26일 한국어교육자 국제대회 강연서

‘한국어의 미래’ 주제로
재외 한국어교육자 대상


고은 시인이 ‘2016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해가 진 뒤의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는 어둠 속에서 존재의 빛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언어 없이 인간 존재는 성립되지 않고 모국어 없이 민족의 본연은 불가능하다.”

승려 출신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인 고은 시인이 한국인의 언어철학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했다.

고은 시인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사장 영담)이 7월 26일 개최한 ‘2016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에 앞서 ‘한국문학과 한국어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고은 시인은 “비록 한자이긴 하지만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당송의 시로부터 해방된 허균이나 나는 조선인이므로 조선시를 쓰겠노라던 정약용, 한글시를 남긴 정철과 윤선도는 고대 시가의 위대성을 상속한 모국어의 영광”이라며 “원효가 말에 의한 진리(依言眞如)와 말을 떠난 진리(離言眞如)를 합치한 것은 실로 고대 이래 한국인이 갖춰야 할 언어철학의 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향후 계획도 밝혔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모국어사전’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모국어 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도 합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사전의 정서법, 두운법칙이나 어휘 등의 문제가 난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행사를 주관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 영담 스님, 행사를 주최한 교육부의 이영 차관, 김광호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인명진 목사, 김경협 의원, 전희경 의원, 김세연 의원, 김신일 前 교육부총리(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 등이 참석했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영담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에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자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재외한국어 교육도 이런 변화상에 발맞춰 설계도를 새로 그려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근대화의 핵심이 산업혁명이라면 지구화의 핵심은 전산혁명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촌 반대편의 소식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문화의 세기를 맞아 한류문화가 주목받는 현 시점에서 재외 한국어 교육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할 것도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전문 학술포럼과 강의, 문화체험을 진행하고 7월 30일 폐회했다. 신성민 기자

“조영암, 만해문학 계보 계승… 연구 주목”

만해학회, 7월 29일 ‘만해 한용운과 영암’ 주제 세미나

건봉사서 출가, 백초월에게 수학
만해 영향으로 시 창작 계보이어
만해 서술, 조지훈보다 5년 빨라
관음사상 수용, 말년엔 참선 수행

조영암(趙靈巖, 1918~2001?)은 건봉사 출신 시인으로 매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이다. 관련된 몇몇 행적을 찾아보면 기이함이 있다. 하지만, 그는 매우 개성 넘치는 선시를 썼고, 종군작가로 활동했다. 말년에는 참선 수행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인으로서의 조영암이 만해 스님의 문학적 계보를 계승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7월 29일 열린 만해학회 제16회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영암 연구, 서설(序說)’ 주제의 논문에서 조영암의 불교사상과 불교 행적, 문학 계보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조영암은 1918년 5월 27일 강원도 회양군에서 출생해 15세 때인 1932년 건봉사로 출가했다. 출가의 길을 가던 그는 건봉사가 운영한 신식학교인 봉명학교에서 공부했고, 여기서 신학문을 배우면서 문학도의 꿈을 키운다.

실제, 조영암과 함께 수학한 박설산의 회고록에는 당시 소년회 문예부장을 맡고 있던 조영암이 건봉사를 찾아온 만해 스님에게 시와 소설을 쓰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 있다. 봉명학교는 1936년 일제의 외압으로 문을 닫게 되지만, 조영암은 종비 장학생으로 1941년 혜화전문학교(동국대 전신)에 입학한다.

김 교수는 “조영암은 혜화전문에서 문학의 꿈을 키웠고, 그는 건봉사 출신 문인이면서 동국문학과도 연계된다”고 봤다.

이어 “조영암은 건봉사 시절, 만해 스님에게 문학적 영향을 받아 시인이 됐다”면서 “이는 건봉사 출신 문학인들의 탐구 만해학, 만해문학의 계보에서 결코 배제될 수 없다. 그럼에도 조영암이 만해문학의 계보에 주목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만해 선양 연구 1세대로 조지훈을 꼽는 것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이의를 제기했다. 조영암이 먼저 만해 스님에 대한 글을 썼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조영암이 〈죽순〉11집에 쓴 ‘哭 한용운 스승님:伍周忌를 當하야’를 해방공간인 1949년에 썼다. 이는 조지훈보다 5년이 빠르다”면서 “만해 연구에 있어서 조영암의 글도 기본자료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암의 불교사상에 대해 김 교수는 “조영암은 신앙, 수행, 사상적 측면에서 관음사상을 철저히 수용했다. 그러면서도 말년에는 간화선에 매진했다”면서 “향후 그의 불교사상을 보편적 시각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옥실 아주대 교수의 ‘만해 한용운과 시적 계보 탐색’ △이경호 서울교대 교수의 ‘전쟁문학에 나타난 조국애의 성격’ △백원기 동방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조영암의 선시 세계’ △한명환 순천향대 교수의 ‘조영암의 〈신 임꺽정 전〉 연구’ 등이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김익균(성균관대), 전기철(숭의여대), 오태환(고려대), 장영우(동국대) 등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석도 화상 ‘一劃論’은 선종의 ‘一心’”

탄호 스님, 7월 26일 불교학회 워크숍서 논문 발표

“일획은 깨달음 근본 표현한 것”
‘화어록’, 진리 이르는 방법 제시
신진 학자들 논문 발표도 이어져


한국불교학회는 7월 26일 진관사 함월당에서 2016년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진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 신진학자들의 논문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7월 26일 진관사 함월당에서 ‘2016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신진 학자 논문 발표로 채워져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많은 학위논문들이 배출됐지만 소개할 기회가 적어 반향 없이 묻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중국 석도화상의 〈화어록(畵語錄)〉을 선사상으로 재해석한 탄호 스님의 논문이다. 탄호 스님은 이 같은 내용의 논문으로 2015년도 박사학위를 받았다.

탄호 스님이 주목한 중국 석도화상은 명말청초 시대의 사람으로 명나라 정강왕의 후손이다. 하지만 명나라가 망하고 여기저기 유랑했고, 결국 출가해 스님이 된다. 본월 선사에게서 엄격한 불교 수행을 배웠고, 스스로도 선리(禪理)에 깊이 몰두했다. 이런 수행 과정은 그의 화론(畵論)이 정립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잘 표출된 것이 〈화어록〉이다.

탄호 스님은 “석도화상이 첫 장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일획’은 일획이 만획이며, 만획이 일획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선종에서 말하는 일심(一心), 일념(一念)이며, 불성이고 여래장으로, 실상인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석도는 깨달음의 근본표현으로 귀결한다”고 주장했다.

“‘일획론’을 중심으로 석도화상 자신의 회화관을 삼았다”고 설명한 탄호 스님은 “이것은 무법과 유법을 통합한 유무상생인 것으로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깨달음의 이념”이라면서 “〈화어록〉은 단순한 체험으로만 쓴 내용이 아닌 깨달음에 이른 방법론을 제시하는 화론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윤경 북경대 박사가 ‘이치의 문으로서의 가르침-길장의 이제(二諦) 사상 연구’을, 윤성문 동국대 박사가 ‘〈유마경〉의 대승사상과 불이적 실천행 연구’를, 동국대 박사인 현서 스님이 ‘쫑카빠의 법무아논증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불교학을 개척하고 있는 신진학자들의 학문세계에 대한 탐색과 평가 작업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은 신진학자들과 새로운 연구 경향에 대한 궁금증을 저자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서 대한시대 변화 불교계 어떻게 대응했나

한국불교사硏, 집중세미나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왕조가 대한제국시대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혼란과 위기는 노정돼 있었다. 혼란과 위기의 전환기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했지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와 동국대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오는 8월 6일 오후1시 봉인사 지장전에서 ‘조선후기에서 대한시대로의 불교사적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근호 명지대 학술연구교수가 ‘조선 선조의 광해군 양위과정’에 대해, 서수정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이 ‘조선후기 불교서적의 발간과 유통’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조선후기 불교계의 근대화 준비과정’에 대해,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연구교수가 ‘한길로 법사의 불교대중화 과정’에 대해 각각 살핀다. 이날 토론자로는 이정철 안동 국학진흥원 연구교수, 민순의 서울대 박사, 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 고상현 동국대 박사가 참여한다.

한편, 봉인사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제375주기 광해군 추선재 및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신성민 기자

대학로서 ‘불교미술사’ 배워보자

홍익대 평생교육원, 9월 1일부터 강의 시작

8월 4일까지 온라인 신청

젊음의 거리 대학로에서 불교미술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원장 이한순) 대학로 미술이론아카데미는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 미술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강의 ‘불교미술사’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까지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불교문화의 기본이 되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 불교의 세계관과 시간 개념부터 불교의 다양한 인물들, 불교의식 등에 관해 배우며, 특히 사찰 공간 구조를 비롯해 석등이나 탑, 전각이 갖는 각각의 의미를 세세하게 살핀다.

또한 우리 불교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려한 고려 불화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도 마련된다. 강의는 한국불교미술에 조예가 깊은 이승희 교수가 진행한다.

강의 신청은 8월 4일까지 홈페이지(http://hica.hongik.ac.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8월 셋째 주까지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02)3668-3745 신성민 기자

지구촌 천지개벽에 생명과 운명 죽음을 면하는 도통으로 말법 만년을 통섭하는 유불선 불선도 득도로 각종 질병과 병겁을 다스리는 의통으로 운명을 연장하는 숙명통대법회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입제 2016년 8월 5일 금요일 해시 해제 6일 토요일 해시에 무박2일 숙명통 도통으로 지구촌 병겁이 시작되는 천지개벽 종교개벽 인간개벽으로 천장신장과 십나찰려와 비사문천왕의 재앙으로 해와 달, 별, 태풍, 지진, 화산, 비, 천둥벼락, 각종질병으로 부모조상과 국가와 민족에게 윤리도덕과 효도와 질서를 외면하는 각종 종교 정치 경제 문화사회 등 만 중생들에게 천지개벽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살아남을 자 유불선일체 종교를 통한 도인만이 사는 시대에 유교=정이거정 윤리도덕의 근본인 수신 몸을 다스리는 주역서문에 있고 불교=정법안장 경 · 률 · 논 삼장에 감춰진 생명을 보는 견성성불이며 선교=천지인에 내려진 삼라만상의 근본인성에 감춰진 도법이고 개신교 = 성부 · 성자 · 성신에 생명의 근본은 나는 태양이요 빛이며, 성령이니라 하신 것이다. 부처님 법당에 모시는 점안 의식도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 성취상 청정심 원만상으로 말과 문자만 있지 핵심인 진법주문을 모르기에 점안도 안된 사불을 모시고 있으니, 내부처 점안도 모으면서 견성성불은 돼지 자박에 뜸뜨는 소리니라 이제 말법말년을 지킬 숙명통으로 전생금생 내생에 귀신잡신을 다스리는 도법으로 이생에 올때 가지고 온 염라국에 진빛을 갚고 귀부와 명부에 이름을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리는 숙명통 기도 핵심주문으로 성불 도통하여 만법, 만덕, 만복, 만수건강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인류승리자 되는 이번 숙명통 기도는 이생에 가지고 온 진 빛을 갚는 백중제에 염라국 염라대왕에 진 빛을 갚고 칠성문에 들어가는 금강다라니문을 열어 일체조상들까지도 해원 상생하는 일석이조가 되는 일류 스승되는 도법으로 나무묘법연화불 나무아미타불

※ 최신 묘법팔품연화경 출간으로 만교 만경을 초월 만심 만행 고행 겪음없이 칠비유품과 육난구이로 신통변제 성불하여 행복안락의 영광으로 영원한 수명을 얻는 묘법연화팔품경 당신의 안락처. 값 3만원

■ 입 제 일 : 2016년 8월 5일 금요일 해시
■ 회 향 일 : 2016년 8월 6일 토요일 해시
■ 준 비 물 : 필기도구,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동 참 비 : 10만원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 상담전화 : 032)502-6625 / 010-9292-3110
■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34-3 3층 용천사

천지공사 약사 미륵 달마 십경신 도통회 총본산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용천사 환성태일대종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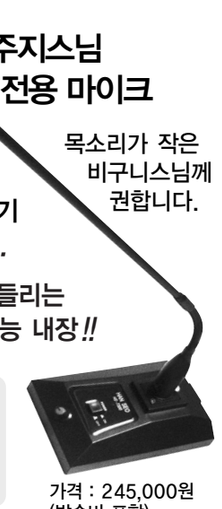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